상권 활성화, 비대면 중기벤처 지원… '권칠승 법안' 초읽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작년 7월 지역상권법 국회 상정
쇠퇴 구도심 '상권 살리기' 목표

전체 벤처 중 19% 비대면 기업
"코로나 19에 비대면 육성 중요
법제정 통해 창업 등 지원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후 지난 8일 처음 연 확대간부회 자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총칙	· 지역상생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정의 ·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 정의
종합계획 수립 등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구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상생협약 ·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상생협약 ·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등 ·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 사업의 시행,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활성화 구역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특례	·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 · 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업종 제한 ·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등 지원 · 부설주차장 설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법안명을 적시하면서 제정 의지를 밝힌 두 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들 법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사실상 '권칠승 1·2호 법안'이 되는 셈이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권칠승 장관은 전날 밝힌 취임사에서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르네상스 추진 등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해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한 모두발언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장관 취임 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

3대 중기부 장관을 맡게 된 그가 '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권 장관이 그러면서 적시한 '지역상권법'은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 법은 도심에 터를 잡고 있던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땅값, 임대료 등의 급격한 상승과 대기업·대규모 프랜차이즈 출현 등으로 밀려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활성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 ▲활성화구역 지원 근거 마련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내 이해당사자간 상생협약 체결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지역상권법은 기존 구도심 상권 부활 프로젝트의 '종합판'인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소위 심사 단계에 있는 기존 발의안에 야당 등이 앞서 제시한 의견을 더한 수정안을 설 직후 상임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관련 산업 육성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냥 지나칠 경우 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 분야'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 관련 창업과 비즈니스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정태호 의원 등 13명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지난해 8월 발의하기 전부터 사전 조율을 통해 내용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분야란 웨어러블, 원격의료, 원격 교육컨텐츠, 스마트 금융, 생활 중개 플랫폼, 스마트 상점,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등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통신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두루 필요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 3만4038곳 가운데 18.9%인 6428곳이 비대면 벤처기업이다. 또 기업당 평균 고용증가인원은 1년 전과 비교해 비대면벤처기업이 1.9명으로 0.5명인 대면벤처기업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법을 놓고 중기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충분하고, 제도적으로 '비대면'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중기위는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협약' 마련 ▲대면접촉을 통해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호장치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인프라 구축 외에 디지털 이용 주체들의 역량, 태도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CC글라스, 협력사 결제대금 조기지급

263곳에 110억 현금지급 계획

KCC글라스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나섰다.

KCC글라스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명절 연휴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KCC글라스는 원재료 및 홈씨씨 인테리어 상품 등을 공급하는 263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일 결제대금 110여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KCC글라스는 이번 조기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전원 고용유지

30명 LG마포빌딩 근무방안 제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근로자 고용 문제가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LG의 빌딩 관리 계열사 S&I코퍼레이션(S&I)과 기존 건물미화업체 지수INC는 9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중재로 열린 두 번째 조정회의에서 현재 LG트윈타워에서 농성 중인 청소근로자 30명 전원을 인근의 LG마포빌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조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만 65세 이상 노조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측과 농성 중인 청소근로자 대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S&I와 지수INC는 지난해 말 청소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아울러 이를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 중재한 조정회의에서도 노조 측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러 사업장에 흩어져 근무할 경우 노조가 와해될 수 있어 트윈타워에서 전체 노조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S&I와 지수INC측은 이번 제안으로 두 달 넘게 이어온 노조의 트윈타워 점거 농성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 해외진출 지원… 나라별 맞춤전략 제시

중진공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中 왕훙 마케팅, 日 시니어 타깃 효과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일본·중동·중남미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9일 중진공이 발간한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에는 지역별 이커머스 주요 통계와 트렌드, 맞춤형 진출 전략 등이 두루 담겨있다.

중국의 경우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단연 세계 1위다. 지난해 온라인 판매액은 10조 6000억 위안, 이커머스 이용자는 10억명을 각각 돌파해 '더블10 시대'에 진입했다. 올해엔 전체 소비 중 절반(52%) 이상이 이커머스로 거래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시장진출 유망 품목은 K뷰티·식음료·주방용품 등이며, 라이브 커머스 방식의 '왕훙 마케팅'을 활용한 진출 전략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이다.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세계 4위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온라인 쇼핑과 영화, 독서 등의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활동인 '둥지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생활용품의 온라인 거래와 배달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일본 진출 전략으로는 높은 구매력을 가진 시니어 세대를 타깃으로한 상품과 4차 한류 붐을 활용한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중동의 관문이자 물류, 항공, 금융의 중심지다. UAE를 포함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은 19.8%로 전 세계 평균(16.5%)보다 3.3%포인트 높다.

이 지역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을 보유한 옴니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영어와 아랍어 지원은 필수다. 최근 PC, 휴대폰, 화상회의 장비와 같은 비대면 IT제품군 등 특정 품목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제품별 접근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침대없는 침대광고' 화제

2021 신규 TV광고 캠페인 공개

시몬스가 2021년 신규 TV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침대 없는 침대 광고'로 매년 화제를 불러 모으며 광고계 트렌드를 주도해 온 가운데 새로운 버전을 선보인 것이다.

9일 시몬스에 따르면 이번 광고에서 '잠을 잘 잔 사람은 일상에서 에너지가 넘친다'는 메시지를 하품으로 위트있게 풀어내며 시몬스의 상징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자연스럽게 강조했다. 물론 이번 광고에서도 침대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상황과 등장인물의 연기만으로 브랜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신선함을 더했다.

광고에는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본인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 하는 상황 속, 숙면을 취한 주인공이 하품은 커녕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표정을 짓는다. 숙면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떠올리게 해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김승호 기자